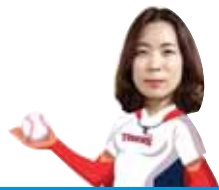


호랑이 타선 '맑음' 마운드 '흐림'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2018 스프링캠프는 '타선 맑음, 마운드 흐림'이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는 5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끝으로 예정했던 연습경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KIA는 지난 3일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이번 캠프에서 모두 11번의 실전을 치렀다.

삼성에 장단 16안타를 맞으면서 5-15, 8회 강우콜드패를 당하며 연습경기 전적은 4승 7패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축 선수들이 견제된 타선은 맑음, 부상 여운이 드리워진 마운드는 흐림이다.

타선은 예년보다 빠르게 새 시즌을 위한 틀을 갖췄다. 지난달 14일 일본 라쿠텐과의 연습경기에서부터 김주찬, 버나디나, 나지완, 이명기, 안치홍, 이범호, 김민식 등 2017 우승 멤버들이 바로 타석에 섰다.

주축 선수들이 천천히 페이스를 끌어올린 뒤 연습경기 막바지에 출격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빠른 개막에 대비해 빠르게 타선이 움직인 것이다. 최형우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부상없이 화력 접점이 이뤄졌다.

여기에 유격수 고민도 많이 풀렸다. 김선빈이 부상 공백 없이 시즌을 시작할 전망이다.

김선빈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발목 뼈조각 제거술과 외측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다. 시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서히 속도를 올린 김선빈은 타격은 물론 수비까지 큰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

타격

김주찬·버나디나·안치홍 등 'V11' 멤버 이른 개막 대비 착착 수술 김선빈도 타격·수비 소화

마운드

홍건희·한승혁 부상 조기 귀국 임기영 어깨 통증 개막전 불발 팻딘, 어깨에 타구 맞고 교체 박정수·유승철 등 활약은 위안

김선빈은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페이스를 올리면서 시즌 전체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이상 무'를 말했다.

황윤호의 발견도 있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 다이노스에서 영입한 황윤호는 약점으로 언급되던 타격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며, 김선빈을 뒷받침할 유격수 백업 요원으로 급부상했다.

타격 실력은 형들 못지않은 최원준도 유격수 연습을 병행하면서, 수비 키우기에 공을 들였다.

마운드엔 '부상'이 변수가 됐다. 김기태 감독 역시 "투수가 고민이다. 부상 선수들이 나왔다. 자리를 잡아야 하는 선수들이다"며 마운드 고민을 이야기했다.

홍건희와 한승혁이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고, 지난 시즌 선발로 우승에 힘을 보탠 임기영은 어깨 통증으로 개막전 합류가 불가능하다.

가슴철렁한 장면도 있었다. 5일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팻딘이 바운드 된 타구에 왼쪽 어깨를 맞고 교체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KIA에는 아찔한 순간이었



지난겨울 발목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KIA 김선빈(왼쪽)이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정상적으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이적생 황윤호도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KIA의 유격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다. 앞선 1일에는 양현종이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에서 강습타구에 맞을 뻔한 상황이 연출되는 등 마운드에 부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민은 있지만 희망도 있다. 사이드암

박정수가 점차 자기 폼을 찾아가면서 위력을 더하고 있고, 고졸 2년 차 유승철도 묵직한 공과 함께 자신감을 더하고 있다. 문경찬, 이종석 등 예비역 등의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또 걸음이 더디기는 하지만 임기영이 불펜에서 간단히 피장을 소화하기도 했고, 한승혁도 큰 부상이 아니어서 시범경기에서 테스트를 받을 전망이다.

/글·사진=wool@kwangju.co.kr



류현진 회복

오늘 시카고 B경기 선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노로바이러스를 떨쳐내고, 2018년 첫 실전 등판을 한다.

MLB닷컴은 5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이 등판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했다. 6일 열리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B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전했다.

다저스는 6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시범경기를 치른다. 동시에 화이트삭스와 비공식 경기를 한다. 클리블랜드와 공식 경기는 리치 힐이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마이너리거가 중심을 이룬 화이트삭스와 비공식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투구 수 40개 정도를 정해놓고 단질 계획이다.

류현진은 2월 초부터 하프피칭에 돌입했고, 불펜피칭을 거쳐 2월 24일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했다. 3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1~2이닝을 소화하며 실전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등판 당일 다저스 캠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MLB닷컴은 처음에는 '감기 바이러스', 하루 뒤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원인으로 꼽았다.

결국 류현진은 1일 경기에 등판하지 못했다. 다시 5일을 쉬 류현진은 일단 마이너리거를 상대로 2018년 첫 실전을 치른다.

류현진은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4경기에 등판해 14이닝을 소화해 2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묵직한 직구를 앞세운 투수 유승철이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개막전 뛰면 가문의 영광이죠"

캠프 주목 고졸 2년차 투수 유승철

"변화구 익숙해지고 직구 힘 붙어...안맞을 것 같다"

"개막전 가고 싶어요.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캠프가 즐거운 KIA 타이거즈의 고졸 2년 차 투수 유승철이 개막 엔트리를 꿈꾸고 있다.

유승철은 KIA의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선수 중 한 명이다. 순천 효천고 출신인 그는 지난해 우선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프로 2년 차다. 기대를 모으며 프로에 왔지만 지난 시즌 성적은 좋지 못했다. 팔꿈치 부상에 시달리며 퓨처스리그 3경기에 나와 7이닝을 던진 게 전부였다.

하지만 부상에서 벗어나 치른 마무리캠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유승철은 자신의 첫 스프링캠프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을 하는 게 즐겁

다"던 유승철은 스프링캠프에서는 "마운드에 오르는 게 재미있다"며 싱글벙글이다. 묵직한 직구가 유승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고교 2학년 때까지 포수를 했던 유승철은 투수로 변신, 좋은 직구로 어필하며 KIA의 우선지명을 받기도 했다. 특유의 직구 위력에 변화구가 좋아지면서 유승철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유승철은 "변화구가 안 좋았는데 이제야 사람답게 던지는 것 같다(웃음)"며 슬라이더를 가장 신경 쓰고 있다. 슬라이더를 던져보니까 스트라이크로 들어와도, 유인구성으로 가도 스윙이 나온다. 지난해 대만캠프에서는 공을 던져도 다 맞았다. 일본팀과 연습경기를 하면서 프로에 와서 처음 삼자범퇴를 해봤다"고 미소를 지었다.

변화구가 익숙해진데다 직구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유승철의 경기가 달라졌

다. '긍정의 힘'이 유승철의 직구에 힘을 더해줬다.

유승철은 "직구 구위가 좋다. 직구 던지면 안 맞을 것 같다. 마운드에 오르면 자신감이 생긴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코치님들의 격려가 있었다. 직구가 진짜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몸쪽 승부도 자신 있게 하려고 한다. 몸쪽으로 공을 던지게 되니까 경기가 잘 되는 것 같다. 직구가 좋아지고 변화구가 되니까 자신감이 더 붙고 이닝을 빨리빨리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막전에 대한 욕심도 커졌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프로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 세밀함도 갖출 생각이다.

유승철은 "잘돼서 좋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다. 좋은 것을 유지해야 한다"며 "포수 출신이라 투구폼이 완벽하지 않다. 계속 추가적으로 안 좋은 걸 고쳐가면서 정점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번째 패럴림픽 도전...죽을 힘 다해 뛰겠다"

크로스컨트리스키 간판 서보라미씨 무용수 꿈꾸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재활 위해 스키 배워



"벌써 세 번째 패럴림픽 도전이네요. 평창에서는 죽을 힘을 다한다는 각오로 후회 없이 달려보고 싶어요."

한국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의 간판 서보라미(32)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임하는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서보라미에게 이번 평창 대회는 세 번째

동계패럴림픽이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 처음 출전했고, 2014년 소치 대회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나갔지만 최하위권 성적에 그쳤다.

학창 시절 무용수를 꿈꾸던 서보라미는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무용 실력으로 남부러울 게 없었다.

하지만 고교 3학년이던 2004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불운을 겪었다. 1년을 눈물로 보내며

방황했고, 2006년부터 재활을 위해 좌식 스키를 배운 계기로 전문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당시만 해도 크로스컨트리 좌식스키 전문 선수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서보라미는 이 부문 국내 '1호'다.

국내 대회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동계체전 3관왕에 오르는 등 경쟁자가 없지만 세계 무대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는 도전자의 자

세로 특유의 '악바리' 근성을 보여준다는 게 서보라미의 다짐이다.

2014년 소치 패럴림픽 때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 '열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는 최근 꾸준한 기록 향상으로 메달권까지 근접해 있다.

지난해 미국 월드컵에서는 스프린트 부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안방 대회에서는 여자 좌식 부문 중거리 5km와 장거리 12km에 출전한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서보라미는 "밴쿠버 대회가 출전에 의미를 뒀고, 소치 대회 때는 부상으로 힘들었다"면서 "이번 평창 대회에서는 자신감이 생겨 꼭 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현 세계랭킹 26위 남자프로테니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26위에 올랐다.

정현은 5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해보다 3계단 오른 26위에 자리했다. 이는 정현이 갖고 있던 종전 한국인 최고 순위 29위를 경신한 기록이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4강 신화'를 쓰며 지난해까지 이형택이 갖고 있던 한국인 최고 랭킹 36위를 뛰어넘은 정현은 지난해 끝난 ATP 투어 맥시 오픈 8강의 성적을 내며 26위까지 도약했다.

정현은 호주오픈 준결승에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를 상대하다가 발바닥 물집 때문에 기권했고 이후 약 3주간 치료에 전념했다.

지난달 말 ATP 투어 델레이비치 오픈을 통해 코트에 돌아온 정현은 이후 2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하며 시즌 초반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순위에서 페더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마린 칠리치(3위·크로아티아) 등 상위권 변화는 없었다. 니시코리 게이(일본)가 25위에 올라 정현과의 '아시안 톱 랭커'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2000년대 이후 아시아 남자 선수 최고 순위는 이형택, 파라돈 시차판(태국), 루엔쑤(대만), 니시코리 등이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순위에서 앤디 머리(영국)가 29위로 밀리면서 정현보다 아래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